

광산구, 일상 감사 범위 축소...투명성 지적 잇따라

광산구의회 8명 의원 규정질문
타 자치구와 현격한 차이 납득 안돼
용역관리 공개·소상공인 대책 질의

광주시 광산구의회 규정질문에서 광산구가 일상 감사 항목을 기존 19개에서 7개로 축소하는 등 규정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광산구의회는 최근 열린 광산구의회 제297회 1차 정례회 규정질문에서 8명의 의원이 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 공병철(더불어민주당, 신흥·우산·월곡 1·2·운남동) 의원은 “광산구가 일상 감사를 기존 19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축소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광주시 및 타 자치구와 비교할 경우 감사범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 의원은 광산구에게 조례에 따라 발주한 용역관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전기차 설치 관련 해 친환경자동차법 및 신재생에너지

법 준수여부를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김영선(더불어민주당, 수완·하남·임곡동)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관련 해 당초 지하화 방식에서 지상 소각시설로 변경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광주시가 원안대로 지하 소각시설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광산복지재단 설립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직영 복지체계와의 비교·분석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타 지자체 사례와 직영체계의 성과 및 복지현장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 대책에 대한 규정 질의도 이어졌다. 김명숙(진보당, 비아·신가·신창동) 의원은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자영업자들이 벼랑끝 생존을 강요받고 있다”며 “전통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화재 위험 등에 노출 돼 있어 안전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더불어민주당, 수완·하남·임곡동) 의원

도 “광산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 평가 및 기업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기업주치의센터 및 지역경제활력센터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안, 두 센터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승효과를 위한 홍보 및 성과분야 확산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김은정(진보당, 첨단1·2동), 조영미(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 박미옥(더불어민주당, 비례), 한윤희(정의당, 하남·임곡·수완동) 의원 등이 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감사 범위가 축소된 것은 중복되는 절차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일상 감사에서 일부를 제외한 것이며,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타당성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두 센터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호남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했으며 위탁계약 종료 시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로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인지 강화 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지역화폐 이용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시너지 효과 창출

5개 자치구,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지원·사용금액 환급행사 등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소비 쿠폰·지역 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골목 상권 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소비 진작 사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북구는 31사단 군 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지원하고 골목형상점가 이용 시 할인해 해 주는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 북구는 지난 24일 제6753부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북구 골목형상점가상인회 연합회 등 4개 기관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 소비촉진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은 31사단 군 장병이 디지털온누리상품에 가입하고 당일 5000원 이상 충전하면,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구 골목형상점

가에서는 군 장병이 가게를 이용할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000원 추가 충전 쿠폰 500매를 지원하고, 군 부대에서는 군 장병들에게 외출·외박 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광주시 서구는 서구 내 18개 동 전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어디서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는 지난해 말 4곳이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수가 25일 기준 119곳까지 확대했다. 이에 앞서 서구는 올 상반기 상인회를 중심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다. 서구는 기존 전통시장 중심으로 제한됐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음식점, 병·의원, 안경점, 약국,

미용실, 세탁소, 카페 등으로 확대했다. 서구 내 점포 1만 7000여 곳 중 가맹 제한 업종, 후·폐업 점포 등을 제외한 1만 1400여 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광산구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원더(The) 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광산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누적 사용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광주시 동구는 앞서 지난 13·14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소비 환급행사 ‘시내로 와오(WOW)’를 총장로 일원에서 펼쳤다. 총장상권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받은 온누리상품권 1억원을 기반 삼아 총장로 일원 상가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 인증 시 1인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국악으로 미술로...인지장애, 문화예술 치유

남구 ‘인지 강화 교실’...7월16일까지 치매안심센터

광주시 남구가 경로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주민들의 인지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치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는 오는 7월 16일까지 ‘2025년 인지 강화 교실’ 프로그램을 남구 치매안심센터 2층 교육실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남구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주민들에게 국악과 미술 등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과 인지훈련 프로그램, VR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춘향가와 수궁가, 심청가, 흥부가를 통해 사랑과 건강, 효,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정서 및 감정 표현법 익히기 등도 익히게 된다.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2차례 진행된다. 남구 관계자는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을 통해 신체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자기 표현법의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로 정서적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서 “경도 인지장애 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해 주민 5995명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 경로 인지장애와 치매 진단을 받은 주민은 각각 175명과 1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북구, 모범주민 발굴 ‘구민상’ 후보 추천 받아요

7월 18일까지 공개모집

광주시 북구가 ‘북구 구민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북구는 다음달 18일까지 제18회 북구 구민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은 북구 지역을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모범 주민들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이다. 북구는 지난 2008년부터 북구 구민상을 매년 시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7명을 수상자로 올렸다.

올해의 후보자는 지역경제, 지역 사회 봉사, 문화 예술체육, 효행, 장한 장애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부문별로 수상자는 각 1명씩이며, 오는 9월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때 구민상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광주시 북구에 거주한 주민 가운데 각 시상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체육 부문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북구에서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주민도 추천할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공모에 접수하려면 북구청 행정지원과에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는 지역주민 30인 이상 연대,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추천 등이 필요하다. 최종 수상자는 후보자 추천 이후 현지 조사, 주민 공개검증 등 과정을 거친 뒤 심사위원회(구의원, 대학교수, 공직자 등)의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상은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웃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상이다”며 “올해도 타의 귀감이 되는 주민이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동구, 청년 창업가 역량 강화 교육 ‘커머스 빌딩 4기’ 모집

광주시 동구는 오는 30일까지 청년 창업가의 실질적인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커머스 빌딩 4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커머스 빌딩’은 동구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지원 공간인 ‘동명 청년창작소’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4기는 기존 F&B(Food&Beverage) 분야에 한정했던 모집 대상을 전 업종 청년 창업자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7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자기 사업의 본질을 찾는 법, 지원사업 합격하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브랜드 팬을

만드는 SNS 운영 전략, 광고 대행사 없이 가능한 광고 성과 전략 등 실무 중심 4개 파트로 구성됐다. 참여자에게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자사물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SNS 콘텐츠·광고 제작 가이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은 동명 청년창작소 누리집(dmyouthlab.kr)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 창업가들이 단순 창업을 넘어 실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